

《黃帝八十一難經》중 脈學條에 관한 研究(Ⅰ)

朴載正 · 金容辰 · 尹暢烈*

Ⅰ. 緒論

一般的으로 東醫理論의 基本書로서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東洋醫學의 鼻祖는 《內·難》 二經이요, 醫學의 理·法·方·藥을 集大成한 것은 《傷寒論》으로 이를 醫學의 三典이라 한다.¹⁾

《難經》은 《黃帝內經》과 其他의 古醫經類에서 가장 難解하고 核心的인 主題를 가려, 이것의 問答을 假說하여 醫難을 解析하는 方式으로 編纂된 것으로²⁾ 《黃帝內經》으로 代表되는 東洋醫學의 古典的, 原典的인 思想을 《傷寒論》으로 代表되는 臨床活用書들의 哲學的 根幹이 되게 하였고, 오늘날 韓醫學이 臨床治療醫學으로서 人類에 貢獻할 수 있게 한 崇高한 價値가 있는 典籍인 것이다.³⁾ 《難經》의 作者와 完成時期는 오늘에 와셔도 統一된 意見과 結論은 아직 없다. 張仲景의 《傷寒雜病論》 序文에 이미 《八十一難》이라는 名稱이 言及되어 있기 때문에⁴⁾ 著作年代에 있어서 一般的인 考證은 漢代以前으로 알려져 있으며, 本書의 作者에 對해서 歷代로 세가지 見解가 있다. 첫째로, 黃帝가 著作했다는 見解이다.⁵⁾ 《帝王世紀》를 引用한 《太平御覽》에 “黃帝有熊氏가 雷公과 岐伯에게 下命하여 經脈을 論하게 하고 81가지의 難解한 것을 質問하여 알게 된 것이 《難經》”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僞託書라는 見解로서 이는 本書의 文字的인 面에서 헤아릴 수 있는데 예컨대 《難經》十四難⁶⁾에 “脈有根本, 人有元氣, 故知不死”라하였는

데 “元氣”라는 用語는 董仲舒의 《春秋繁露》와 楊雄의 《解嘲》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글자로 東漢에 이르러서 많이 쓰여졌다.⁷⁾ 또한 第十九難⁸⁾에 “男子生于寅, 寅爲木, 陽也. 女子生于申, 申爲金, 陰也”라 하였는데, 《說問》包字注의 高誘의 《淮南子》注, 《離騷章句》에 이러한 說法이 있다.⁹⁾ 이러한 文獻의 考證으로 東漢時代로 推定할 수 있고, 後漢 長沙太守를 지낸 張仲景의 《傷寒雜病論》 自序와 《隋書·經籍志》에 《難經》에 對한 記錄이 있으므로 東漢以前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理想의 難經著作者에 對한 諸家의 見解를 綜合하여 考察해 볼때 以後 여러 世代 여러 사람의 尙大한 資料와 思想이 集大成되어 오늘날 《難經》의 醫學史的 價値가 높게 評價되고 《難經》의 指導的 位置를 確固히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秦越人의 著者라는 見解가 있다. 大多數의 註釋家들은 秦越人이 著作한 것으로 알고 있다. 當代의 楊玄操는 처음으로 《難經》을 秦越人 扁鵲의 著作이라고 主張하였는데¹⁰⁾ “黃帝

2)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32.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1.

4)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0.

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1983, p.9.

6)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8, p.32.

7) 難經譯釋, 臺北, 昭人出版社, p.2.

8)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8, p.50.

9) 難經譯釋, 臺北, 昭人出版社, p.2.

10) 甄志亞, 中國醫學史, 傷害科學技術出版社, p.26.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1.

八十一難經者，斯乃渤海秦越人所作也”라 하였고, 《舊唐書·經籍志》에도 “黃帝八十一難經一卷，秦越人撰”¹¹⁾이라 하여 楊玄操와 같이 秦越人 所作說을 主張하였다. 이후 수많은 醫家들이 이 說을 主張하였다. 秦越人は 紀元前 407年~紀元前 310年 정도까지의 大略 紀元前 5世紀 前後 사람이다. 渤海의 鄭郡(지금의 河北省 任邱縣)人이며 當時의 診斷法인 望聞問切等의 方法을 總結하여 臨床 實際에 應用함이 뛰어났으며 특히 脈盡에 精通하여 中國脈學의 創造者로 推崇되어 古代 史家로 有名한 司馬遷도 “天下至今言脈者，由扁鵲”이라 하였으며¹²⁾ 사람들이 그를 軒輊時代의 名醫인 扁鵲에 比喻하여 “扁鵲”이라 한 것이다.¹³⁾

難經의 名稱에 對해서 대체로 세가지의 見解가 있다. 첫번째는 “難”을 論難하다는 뜻으로 解析해야 한다는 것이니 皇甫謐의 《帝王世紀》¹⁴⁾에서, “黃帝命腦空氣魄，論經脈，旁通問難八十一難爲難經”이라 한 것과 같다. 둘째로 “難”을 어렵다고 解析한 것이다. 黎泰辰은 “難이라고 하는 것은 人體의 五臟六腑가 內部에 숨겨져 있어 邪氣가 侵犯하게 되면 잘 헤아려 알지 않으면 안되므로 오직 脈理로 터득해야 하니 이와 類似한 것이 아니겠는가? 脈을 짚는데 二十菽重으로 누르기도 하고 또는 수레달개와 같이 느슨하게 누르기도 하며 닭깃을 만지듯 눌러서 內外의 疾病을 살피서 아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¹⁵⁾ 세째로 “難”을 疑心스럽고 判斷하기 어려운 것을 解說한다는 뜻으로 解析해야 한다는 뜻이다. 徐靈胎는 “《素問》과 《靈樞》의 簡單하면서도 深奧한 뜻을 실마리만 끌어내고 發明하지 않은 것을 問答하는 말로써 그 뜻을 暢達하게 하였다.”고 한 것과 같다.

難經이라는 一書에는 歷代 註釋家들이 數十餘派가 되는데 孫權이 세운 吳代에는 呂廣

이 註釋한 것, 唐代의 初期에는 楊玄操의 補注本, 宋代에는 丁德用, 虞庶, 周仲立, 龐安時 등이 있었으며, 金代에는 紀天錫, 張元素 등이 있고, 元代에는 袁淳甫, 謝堅白, 滑伯仁 등이 있으며, 明代에는 張天成, 虞天民 등이 있고, 清代에는 徐靈胎, 丁履中, 黃坤載 등이 있으며, 近代의 註釋家들도 적지 않다.

本 論文은 譯釋의 方法을 選擇하여 論하였고, 滑伯仁의 《難經本義》를 根據로 삼고 其他書를 參考하였다. 章의 分類로는 吳澄의 方法으로 하여 一難에서 二十二難의 脈學, 二十三難에서 二十九難의 競落, 三十難에서 四十七難의 臟腑, 四十八難에서 六十一難의 疾病, 六十二難에서 六十八難의 俞穴, 六十九難에서 八十一難의 鍼法으로 採擇하고 있다. 그 內容으로는 生理, 病理, 診斷, 治療等 各方面을 包括하고 있으며 歷代醫家들은 모두 매우 훌륭한 評價를 하고 있다. 滑伯仁은 그의 《難經本義》序文에 內容이 豐富하고 理論이 正確하다고 매우 칭찬하였고, 後學들의 研究心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難經》은 黃帝의 《素問》, 《靈樞》의 要旨를 問答體로 그 뜻을 설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營衛度數, 尺寸部位, 陰陽五行, 臟腑 內外, 脈法, 病態와 經絡流注, 鍼刺俞穴에 까지 두루 간략한 말로써 그 뜻을 廣範圍하게 說明하여 옛 聖人의 뜻을 擴充하여 後賢을 啓發하였으므로 百姓을 念慮하는 者에게는 매우 切實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難經의 理論은 比較的 완벽하고 또 여러 面

12) 漢醫學大辭典(醫史編纂編,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p.322.

13) 陳居霖, 中國歷代名醫錄, 臺北, 現代中醫藥學院, 1977, p.5.

14)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1983, p.9.

1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正中書局, 1983, p.8.

“世傳皇帝八十一難經 謂之難者 得非人之五臟六腑隱於內 爲邪所干 不可測之 惟以脈理究其彷彿邪 若脈有重二十菽者 又有如按車蓋而若循雞羽者 復考內外之證參校之 不其難乎”

11) 史仲序, 中國醫學史, 臺北, 國立編譯館出版, p.27.

으로 獨創적인 意味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으로 說明할 수 있겠다. 우선 脈盡方法에 對해서는 日難에서 二十二難까지를 說明하는 것으로서 比較的 分명한 系統性이 있으며, 特히 第一難의 寸口에서만 脈을 짚는 방법은 創造적인 方法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數千年동안 臨床에 應用되어 왔다. 두 번째로 生理方面으로는 第二十六難의 十五絡에 對한 明白한 說明에서 陽絡은 陽蹻絡, 陰絡은 陰蹻絡으로 提示하고 있는데 이는 絡脈上으로 創造적인 見解인 것이며 治療에 있어서 相當한 影響을 주고 있다. 經絡學說面에서 奇經八脈의 順行方向과 起止點을 詳細히 說明하였을 뿐만 아니라 奇經八脈과 十二經脈의 生理機能上 差異點을 드러나게 하였고, 《內經》의 未備點을 補充하였다. 세 번째로 病理的 側面에서 第五十五難의 積聚概念과 五十六難의 五臟積의 概念은 모두 그 證狀, 病理, 疾病過程의 傳變過程을 全般的으로 說明한 것이다. 네 번째로 治療方面으로는 補瀉面에서 두드러진 것은 內臟의 복잡한 關係에 맞추어 “瀉南補北”의 法則(第七十六難)을 提示하였다. 또한 第七十七難에서 “유능한 醫師는 發病前에 다스리고 發病前에 다스린다는 것은 肝의 病이 나타나면 肝은 脾로 傳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脾氣를 實하게 하여야 肝의 邪氣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論點에서 張仲景의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은 이 理論을 繼承하고 進一步하여 明白히 說明하였으며 後世醫學에서도 治療上 豫防醫學的 措置로 쓰여 왔다.

本論文은 脈學篇에서 第十六難의 “五臟疾病脈과 諸證狀과의 關係에 對한 論議”와 第十七難의 “脈과 證의 相應과 相反時의 豫候에 關한 論議”를 中心으로 《內經》의 論議를 뒤어넘는 獨創性¹⁶⁾을 바탕으로 體系的으로 研究하고자 함이며, 이에 첫과정으로서 이 論考를 發表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本文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내용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各 難별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解釋을 하였으며, 校勘字句解를 가하였고 各家注를 인용하여 縣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관한 考察整理를 하였다.

가. 題目은 《難經校釋》에 依據하여 달았다.

나.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다. 出處는 《內經》의 原文을 爲主로 밝혀 《內經》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출처없음’이라고 하였다.

라. 縣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위주로 하되 各 注釋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다.

바. 校勘은 각 引用文獻 중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사. 字句解는 原文 중에서 難解한 부분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의견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위주로 비교 설명하였다.

아. 各家注는 아래에 제시할 引用文獻의 注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제시하였고, 縣吐 이외에 注釋 내용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脚注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中國의 문헌을 앞에 제시한 후에 日本의 文獻들을 제시하였다.

자. 考察은 各家注의 내용들을 토대로 各 難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차. 考察 중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설명과 各家에 대한 해설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脚註로 처리하였다. (各家에 대한 설명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참고하였

16)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3.

다.)

카.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校勘은 <>, 字句解는 (), 各家注는 [], 脚注는)로 표시하였다.

다.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 ”로 強調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각 注釋書의 시대와 순서는 千柄泰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중 “難經의 注解書 目錄”¹⁷⁾을 參照하였다.

<參考 註解書>

著 者	書 籍	時代	備 考
滑 壽	難經本義	元	<<本義>>라 稱한다.
王九思	難經集注	明	<<集注>>라 稱한다.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圖註>>라 稱한다.
徐大春	難經經釋	清	<<經釋>>이라 稱한다.
黃元御	難經懸解		<<懸解>>라 稱한다.
丁 錦	古本難經闡注		<<闡注>>라 稱한다.
葉 霖	難經正義		<<正義>>라 稱한다.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民國	<<匯海>>라 稱한다.
南京中醫學院	難經譯釋	中國	<<譯釋>>이라 稱한다.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校釋>>이라 稱한다.
凌耀星	難經校注		<<校注>>라 稱한다.
王洪圖	難經		<<難經>>이라 稱한다.
廖 平	難經經釋補證		<<補證>>이라 稱한다.
唐湘清	難經今釋	臺灣	<<今釋>>이라 稱한다.
黃維三	難經發揮		<<發揮>>라 稱한다.
丹波元胤	難經疏證	日本	<<疏證>>이라 稱한다.
藤萬卿	難經古義		<<古義>>라 稱한다.
加藤宗博	盧經衰腋		<<衰腋>>이라 稱한다.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研究>>라 稱한다.

III. 研究 內容

17)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p.40-42.

第十六難.(五臟疾病脈과 證의 關係)

【原文】

十六難曰⁽¹⁾ 脈有三部九候⁽²⁾ ⁽¹⁾ 有陰陽⁽³⁾ 有輕重⁽⁴⁾ 有六十首⁽⁵⁾ 一脈變爲四時⁽⁶⁾ 離聖久遠⁽⁷⁾ 各自是其法⁽⁸⁾ 何以別之⁽⁹⁾

然⁽¹⁰⁾ 是⁽¹¹⁾ 其病에 有內外證⁽¹²⁾ 其病爲之 奈何⁽¹¹⁾

然⁽¹³⁾ 假令得肝脈⁽¹²⁾ 其外證은 善溲⁽¹³⁾ 面青⁽¹⁴⁾ 善怒⁽¹⁵⁾ 其內證은 臍左有動氣⁽¹⁶⁾ 按之牢若痛⁽¹⁷⁾ 其病은 四肢滿閉⁽¹⁸⁾ 淋洩便難⁽¹⁹⁾ <1> 轉筋⁽²⁰⁾ 有時者는 肝也⁽²¹⁾ 無時者는 非也⁽²²⁾

假令得心脈⁽²³⁾ 其外證은 面赤⁽²⁴⁾ 口乾⁽²⁵⁾ 喜笑⁽²⁶⁾ 其內證은 臍上有動氣⁽²⁷⁾ 按之牢若痛⁽²⁸⁾ 其病은 煩心 心痛⁽²⁹⁾ 掌中熱而腕⁽³⁰⁾ 有時者는 心也⁽³¹⁾ 無時者는 非也⁽³²⁾

假令得脾脈⁽³³⁾ 其外證은 面黃⁽³⁴⁾ 善噦⁽³⁵⁾ 善思⁽³⁶⁾ 善味⁽³⁷⁾ 其內證은 當臍有動氣⁽³⁸⁾ 按之牢若痛⁽³⁹⁾ 其病은 腹脹滿⁽⁴⁰⁾ 食不消⁽⁴¹⁾ 體重⁽⁴²⁾ 節痛⁽⁴²⁾ 怠墮嗜臥⁽⁴⁴⁾ 四肢不收⁽⁴⁵⁾ 有時者는 脾也⁽⁴⁶⁾ 無時者는 非也⁽⁴⁷⁾

假令得肺脈⁽⁴⁸⁾ 其外證은 面白⁽⁴⁹⁾ 善嚏⁽⁵⁰⁾ 悲愁不樂⁽⁵¹⁾ 欲哭⁽⁵²⁾ 其內證은 當臍有動氣⁽⁵³⁾ 按之牢若痛⁽⁵⁴⁾ 其病은 喘咳⁽⁵⁵⁾ 洒淅寒熱⁽⁵⁶⁾ <2> 有時者는 肺也⁽⁵⁷⁾ 無時者는 非也⁽⁵⁸⁾

假令得腎脈⁽⁵⁹⁾ 其外證은 面黑⁽⁶⁰⁾ 善恐⁽⁶¹⁾ 欠⁽⁶²⁾ 其內證은 臍下有動氣⁽⁶³⁾ 按之牢若痛⁽⁶⁴⁾ 其病은 逆氣⁽⁶⁵⁾ 小腹急痛⁽⁶⁶⁾ 泄如下重⁽⁶⁷⁾ 足脛寒而逆⁽⁶⁸⁾ 有時者는 腎也⁽⁶⁹⁾ 無時者는 非也⁽⁷⁰⁾

【解釋】

十六難에 이르기를 脈은 三部九候가 있고 陰陽이 있으며 六十首가 있고 一脈이 變하여 四時가 되니 聖人의 時代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각기 自身들의 脈法이 옳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判別하는가?

그것은 그 病에 內證과 外證이 있기 때문이다.

그 病證은 어떠한가?

假令 肝脈이 나타나면 그 外證은 善潔하고 面靑하며 善怒하고, 그 內證은 배꼽의 왼쪽에 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隱隱히 아프게 된다. 이 病은 四肢가 脹滿하고 運動을 할 수 없으며 大小便이 困難하며 筋이 뒤뜰어지게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肝病이고, 없으면 아닌 것이다.

假令 心脈이 나타나면 그 外證은 顔面이 赤色이며 입이 마르고 옷기를 잘 하고, 그 內證은 배꼽위에 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隱隱한 痛症이 있고, 이와 같은 病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손바닥에 熱이 나고 헛구역질을 하니 이것이 있으면 心病이고 없으면 아닌 것이다.

假令 脾脈을 얻으면 그 外證은 面黃하고 딸꾹질을 잘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하며 맛을 잘느낀다. 그 內證은 배꼽주위에 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隱隱한 痛症이 온다.

이 病은 腹脹滿하며 飲食이 消化가 되지 않고 몸이 무거우며 四肢에 體節痛이 있으며 온몸이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四肢不收가 되니 이런 것이 있으면 脾病이고 없으면 아니다.

假令 肺脈을 얻으면 그 外證은 面白하고 재채기를 잘하며 항상 憂愁에 젖어 즐겁지 못하며 울기를 잘한다. 그 內證은 배꼽 오른쪽에 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隱隱한 痛症이 있다.

그 病은 喘息과 咳嗽이 있고 惡寒發熱이 나니 이러한 病이 있으면 肺病이요 없으면 아닌 것이다.

假令 腎脈을 얻으면 그 外證은 面黑하고 恐怖感과 하품을 잘하게 된다.

그 內證은 배꼽 아래쪽에 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은은한 痛症이 온다.

그 病은 逆氣하고 小腹急痛하고 泄瀉가 나면서 後重氣가 있으며, 足脛이 寒冷하니 이

것이 있으면 腎病이고, 없으면 아니다.

【出處】素問 方盛衰論

【校勘】

〈1〉其病, 四支滿閉, 淋溲便難: 《經釋》에는 이 부분이 “其病曰支滿, 閉淋溲便難”으로 되어 있다.

〈2〉灑淅寒熱: 《經釋》에는 “灑淅寒熱로 되어 있다.

【字句解】

(1)三部九候: 三部는 寸, 關, 尺을 가리킨다. 九候는 寸關尺 每部마다 浮, 中, 沈等 세 가지 形態가 있어 共히 九候가 된다. (18難을 살펴 볼 것) 《素問 三部九候論》을 살펴보면 三部九候란 人體의 頭部 手部 足部를 上中下 三部로 나누게 되고 每 한부의 診脈部位가 天, 地, 人 三候로 나누게 되어 九候가 되는 것이다. 本難과는 같지 않다.

【各家註】

《本義》¹⁸⁾

〔1-9〕謝氏曰

此篇은 問三部九候以下共六件이나 而本經病不答所問이니 似有缺文이라 今詳三部九候하니 則十八難中第三章言之하고 當屬此篇은 錯簡在彼라 陰陽見四難하고 輕重見五難하고 一脈變爲四時하니 卽十五難에 春弦夏釣秋毛冬石也라 六十首는 按컨데 內經方盛衰篇曰 聖人持診之道는 先後陰陽而持之하고 奇恒之勢는 乃六十首니 王註謂奇恒六十首는 今世不存 卽失其傳者는 由來遠矣라

〔10〕此蓋答辭는 然與前問不相蒙이니 當別有問辭也라

〔11〕問內外證之詳也라

〔12-22〕得肝脈이니 診得弦脈也라 肝與膽은 合 爲 淸淨之府하니 故善潔이라 肝爲將軍之

18)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45-48.

官이니 故善怒하고 善은 猶喜好也라 面靑은 肝之色也라 此外證之色脈情好也라 臍左肝之部也니 按之牢若痛者는 若謂其動氣면 按之堅牢而不移거나 或痛也 라

憑氏曰 肝氣曠鬱한 則四肢滿閉하니 傳曰風淫末疾是也라

厥陰脈은 循陰器하고 肝病 故로溲便難이라 轉筋者는 肝主筋也라 此內證之部屬에 乃所主病也라

[23-32] 掌中은 手心主脈所過之處니 蓋眞心不受邪에 受邪者手心主爾라 哕은 乾嘔也니 心病卽火盛故哕이라 經曰 諸逆衝上은 皆屬於火요 諸嘔吐酸은 皆屬禦熱이라

[33-47] 靈樞口問篇曰 噫者는 寒氣客于胃면 厥逆從下上散하고 復出于胃니 故胃噫라

經曰 脾主四肢라

[48-58] 岐伯曰 陽氣和利면 滿于心하고 出于鼻하니 故爲嚏라 洒淅寒熱하니 肺主皮毛也라

[59-70] 腎氣不足則爲恐이라 陰陽相引則爲欠이라 泄利下重은 少陰泄也라 知讀爲而니라

《集主》¹⁹⁾

[1-2] 呂曰 三部者는 寸關尺也요 九候者는 上部三候요 中部三候요 下部三候니 三三如九也라

丁曰 三部者는 寸關尺也라 九候者는 浮中沈也니 時一難之所演也라

虞曰 三部法三才 故로 有天地人하니 三部之中은 亦各有天地人이니 因而成九라 上部天以候는 頭角리요 上部之人以候는 耳目이요 上部之地以候는 口齒고 中部之天以候는 肺요 中部之人以候는 心이요 中部之地以候는 胸中之氣이고 下部之天以候는 肝이고 下部之人以候는 脾胃이고 下部之地以候는 腎인 故로 曰 三部九候也라

[3] 呂曰 寸口者는 陽脈見九分而浮하고 尺

部者는 陰脈見一寸而沈이라

丁曰 陰陽者는 是二難에 尺寸皆陰陽前後上下之法也라

虞曰 三部之中에 各有一陰一陽하니 來者爲陽하고 去者爲陰하니 察陽者는 知病之所有하고 察陰者는 知死生之期也라

[4] 呂曰 肺如三菽之中是謂輕이요 腎脈은 按之하면 至骨如十五菽之重하니 是謂重也라

丁曰 輕重者는 是五難焉에 輕重之法也라

虞曰 凡切陽脈은 乃輕手取하니 謂陽脈浮也라 切陰脈은 乃重手取하니 謂陰脈沈也라 故로 曰輕重라

[5] 呂曰 首는 頭首也라 蓋三部從頭者는 脈輒六十首라

丁曰 六十首者는 是十難에 經一脈變爲十是也라

虞曰 六十首者는 乃一脈變爲四時是也라 謂春脈은 弦이요 夏脈은 鉤요 秋脈은 毛요 冬脈은 石이니 季夏及四季脈은 緩이요 逐四時之休王은 一脈變爲五니 十二經內成六十首也라

[6] 呂曰 是手太陰之動은 以決四時하니 逆順吉凶之法也라

丁曰 十五難에 是言四時以胃氣爲本인데 況經脈十二經은 謂脈隨四時之變換한데 非手太陰也라

虞曰 凡切脈은 始起於六脈이니 謂浮沈長短滑瀦也라 乃三陰三陽之脈也라 六脈趣四時之變인 故로 有二十四脈形焉이라 今六十首는 乃備言手足三陰三陽合之면 爲十二脈이고 隨弦鉤毛石變之하면 爲時經合之하니 爲六十脈인 故로 曰 一脈變爲四時라

[7-9] 呂曰 言三部는 是一法이고 九候는 是一法이요 陰陽은 是一法이요 輕重은 是一法이요 六十首도 是一法이니 言法은 象無多難可分別인 故로 言之難也라

丁曰 離聖人久遠者는 爲越人時去聖逾遠也라 各自是其法者는 爲前所演其法也니 故曰各自是其法也라

[10] 呂曰 法은 象無多나 或變爲四時하면 難可分別이니 故以中外別에 其病以名之難也

19)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94-107.

라

丁曰 是字는 當作視物之한데 視上文는 言視病之法이요 不與診法同인 故로 云別也라 然字者는 是越人自答之語也라 言使人視 其靜明五色하니 循按察之左右卽知內外之證인 故로 知是字는 當作視物字用하니 此是字는 傳瀉之錯誤也라

虞曰 一藏一府는 乃一表 一裏하니 府之病은 主於外인 故로 有外證이고 臟之病은 主於內인 故로 有內證也라

{11-12} 虞曰 肝脈은 弦軟而長이라

{13-15} 足少陽膽者는 府也라 故로 有病則見於外也요 又膽爲淸淨之府인 故로 善潔也요 主於外見은 面靑也요 又膽爲中正之官이니 主決斷인 故로 善怒也라

{16-17} 虞曰 五積之候에 肝之積名曰肥氣니 在臍之左也라

{18} 虞曰 肝木이요 脾土니 脾主四肢하니 木病卽土無所畏인 故로 四肢閉滿이라 玉機眞藏論曰 脾太 過는 令人四肢不舉라

{19-22} 丁曰 肝者는 東方木也라 其治는 在左應震이니 臍左有動氣하고 按之牢若痛이라 其病에 四肢滿閉者는 謂支節攣羸也라 淋洩便難者는 足厥陰이 上系舌本하고 下環於陰器하니 故로 淋洩便難라也 其轉筋者는 爲肝含血以樣筋 故로 病卽轉筋也라 有此內外證卽肝也요 無是者非也라

虞曰 癰洩는 謂小府澁也라 便難은 大府所注難也라 謂肝脈循於陰器고로 癰洩也라 肝腎主下部하니 肝病則氣逆不行於下 故로 便難也라 肝屬木也요 木曰曲直이요 筋乃象之니 今肝病故轉筋也라

呂曰 外證者는 府之候요 膽者淸淨之府 故로 面靑하고 善潔하나 若依被 飲食不潔者는 其人使欲怒라 膽色靑 故로 面靑怒也라 其內證者는 肝之證이고 肝者는 東方爲靑龍在左方 故로 肝之證在臍左라

{23-26} 丁曰 外證者는 手太陽之脈爲外經 故로 有病卽見於外其應火 故로 病卽外熱하고 口乾하고 喜笑하니 是其外證也라

虞曰 心脈은 浮大而散하고 心屬火하고 火性炎上 故로 面赤口乾也라 心在聲爲笑也라

{27-32} 丁曰 心者는 南方火也요 其位在裏 故로 臍上有動氣라 其病은 煩心하고 心痛하며 掌中熱而腕者는 病卽煩痛이라 臂內에 中熱而腕者는 是其內證也라 有其證者는 心之病이요 無其證者는 卽非라也

虞曰 心之積名曰 伏梁이요 在臍上에 火之生熱이요 心爲五臟之君이니 四臟有病은 心主知之 尙有痛狀이니 何況本經自病耶니이까 常痛은 乃心包脈也라 正心不受病이니 病卽旦占夕死요 夕占旦死니 重明受病하니 心包絡乃手厥陰之脈은 出兩手中指之端하여 不入掌하니 心屈名指取之하면 穴名勞宮穴이라 心包病卽掌中熱而腕心이라

呂曰 外證者는 小腸受太陽脈爲熱故로 今口乾하고 陽主躁 故로 喜笑也라 其內證者는 心이니 心在前爲朱雀 故로 證在臍上也라

{33} 虞曰 脾脈은 中緩而大라

{34-35} 丁曰 其外證은 面黃하고 陽明爲胃之經 故로 見色黃하고 外之證也라

虞曰 脾土라也 在變動爲噫라

{36} 虞曰 脾者는 在志爲思也라

{37} 虞曰 脾主甘하니 受味면 故善味라

{38-39} 虞曰 脾之積名은 曰 痞氣라 當臍之中이라

{40-47} 丁曰 內證者는 足太陰脾也라 當臍有動氣는者 脾主中州也라 其病腹滿하고 食不消하며 體重節痛하고 怠墮嗜臥하며 四肢不收니 皆爲土土靜故로 有此證前注요 言外證은 面黃而不解餘說者니 爲善噫 善味者는 爲脾也라 今腹脹滿하고 食不消하면 卽是胃也라 胃爲水穀之海니 病卽食不消하고 體重節痛하고 怠墮嗜臥하고 四肢不收하니 皆是見外證也라 今卻言內證也는 此經所說文至不明이니 未敢盡注其說以候後賢야라

虞曰 濕氣勝卽令人彭脹하고 陽氣在下니 食乃不消면 得主內病卽如是脾屬土라 土性安靜 故로 知是土主四肢니 病乃四肢不收라

呂曰 外證은 足陽明胃脈之證이니 胃氣實하

고 穀氣消即多所思하고 欲飲食은 胃氣虛니 食不消하고 氣力虛羸라 其人或思慮內證者脾라也 脾는 在中央故로 證當臍하고 臍者는 又陰陽之中 故로 其脈은 在脾也라

[48-52] 丁曰 其外證者는 手陽明之經이요 大腸爲肺之府也라 故로 善嚏하고 悲愁不樂하고 欲哭 하니 此外之證也라

虞曰 肺脈은 浮短而濇하고 面白하니 乃金之色也라 肺主皮毛하고 皮毛外感寒하고 內合於肺故로 嚏也라 悲者는 肺之志也라 脾土요 肺金이니 脾는 爲肺母니 脾主歌요 子病이면 母憂하니 故로 不樂이요 在聲爲哭이라

[53-58] 丁曰 其言內證者는 手太陰之經이요 應西方이요 金在兌 故로 言齊右有動氣也라 其爲喘咳하고 洒淅寒熱者 故로 知內證也라

虞曰 肺之積名曰息賁이요 在右脇下하고 肺主皮毛하니 今寒氣外感於皮毛하고 內合於

肺則氣道澁 故로 喘而咳하니 肺主氣하고 外候於皮毛하니 肺虛即洒淅寒하고 肺實即熱而悶 故로 云寒熱也라

呂曰 外證者는 大腸脈也요 乃手陽明之脈은 爲肺之府니 氣通於鼻 故로 善嚏하며 肺主秋하니 秋愁也라 故로 其病은 悲哭라 內證者은 肺之證인데 肺主皮毛하고 有寒則洒淅하고 咳嚏니라 肺在西方은 爲白虎主右方 故로 證在臍右니라

[59-62] 丁曰 其外證者는 太陽膀胱之經 故로 爲外經也라 故로 有病即色黑하고 面黑하며 喜恐欠也라

虞曰 沈濡而滑은 腎之脈也요 黑色은 腎之色也요 在志曰恐이니 巨陽虛則欠이라

[63-64] 虞曰 腎之積名曰賁豚이니 在左下 故로 云在臍下라

[65-70] 丁曰 內證者는 腎王於冬하고 應北方 故로 在臍之下也라 其病은 逆氣하고 少腹急痛하며 泄如下重하니 其泄者는 爲大瘕泄而裏急後重也라 此內之證也라

虞曰 腎氣不足이면 傷於衝脈 故로 氣逆하고 腎者는 足少陰之脈이니 循少腹與足厥陰足太陰三陰交於臍下라 今病은 故로 少腹急痛也

라 五泄之候는 腎이니 爲後重泄이요 腎者는 胃之關이니 今氣虛 로 爲下重泄이니 謂食畢하고 思急圍이라 足內踝上五寸間에 乃足少陰之動脈 故로 足脛寒而逆通이라 評虛實論曰 氣逆者는 足寒也라

呂曰 外證은 足太陽膀胱脈也라 其人善欠者는 其人善惡寒者가 若脛寒하고 身體가 灑灑而寒 故로 其善欠이라 腎與手少陽俱主候心 故로 善恐이라 其內證者는 腎王於冬이요 主北方玄武 故로 證在臍下라

虞曰 經言是其病은 有內外證이나 推尋至此나 惟肝脈平證은 善潔二字는 是表證이요 心脈은 不見手太陽外證이요 脾脈中有善噫는 是外證이요 肺脈亦無手陽明之證이나 腎脈中只有欠一字는 是足太陽不足之證이라 五臟推之 하면 黃帝素問并言皆只足藏之證也라 越人言其外證者는 取其形見於外也라 呂氏所注多不該經이라

《圖註》²⁰⁾

[1-10] 三部九候는 詳見十八難中에 陰陽輕六十首俱解見前矣라 重一脈胃氣也라 變爲四時者는 遇春夏秋冬而變見弦鉤毛石也라 診法은 有是數者니 越人自謂其時가 離上古軒岐之聖蓋有年矣니라 其後歷代名醫는 輩出各執己見하여 立爲成法하니 離聖已遠한대 而愈失其眞果라 何以別其孰是而孰非乎아 噫라 診法固有不同이니 病證은 猶有可驗이리요 有是病有是症에 而更得是脈即庶乎아 其不差矣라

[11] 承上文內外症은 以起下文也라

[12-22] 此言은 診得肝之病脈也라 肝脈已見於肝部한대 而和平此乃平脈은 不必謂得肝脈也라 或太過或不及은 謂之得肝脈也라 內證은 見於內하고 外證은 見於外하니 而可驗者也라 肝府는 淸淨 故로 善潔이라 面青은 肝之色也라 善怒는 肝之志也라 其治는 在左 故로 臍左有動氣하고 牢堅硬也라 肝病則肝氣不行 故로 面肢滿閉하고 淋淋瀝也라 溲는 不得小便

20)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p.25-28.

也라 便難은 大便不通也라 轉筋은 筋急也라 有肝之脈이면 有肝之診하고 有肝之病이면 是肝之病也라 否則不係면 是臟病矣라

[23-32] 此言은 診得心病之脈也라 面赤者는 心火之色見也라 口乾은 心火旺也라 喜笑는 心之志與聲也라 心位는 在上 故로 臍上有動氣하고 掌心之經也라 哕者는 有聲而無物하고 心中熱 故로 發哕이라 得心之脈하면 得心之症은 得心之病也라 得其脈而不得하면 其病症은 非心病也라 喜字는 當作善 字는 因喜亦屬心經 故로 得而解之라

[33-47] 此否인 故로 得脾病之脈也라 黃乃脾之色也라 噫者는 因脾氣不順也라 靈樞曰 寒氣客於亦胃하면 厥從上散하여 復以出胃 故로 爲噫也라 此與靈樞之言其胃不同이라 然이나 胃乃脾之府也라 故로 渾言之耳이라

善思者는 其志也라 脾水穀味니 故曰善味라 脾不足이면 思味以助之하니 脾胃居中動氣者는 所以當臍하니 脾病而不爲運用하니 故로 腹作脹滿하고 不能腐化水穀也라 脾主四肢하니 病則體重節痛하고 怠墮嗜臥하며 四肢手足也라 不收는 少力氣也라 得脾之脈하면 作得之證은 得脾之病也라 否則非脾病矣라

[48-58] 此言은 證得肺之病脈이니 亦曰者 肺之色이라 其志는 悲라 其聲은 哭이라 志若悲愁而不樂 故로 其聲若哭也라

其治는 在右인 故로 動氣在臍右라 肺主氣하니 邪居肺卽氣不順而作喘咳니라 肺主皮毛하니 毛風寒所傷則洒淅寒熱이라 得肺脈而有此病症이면 肺病也요 無此면 則非肺病矣라

[59-70] 此言은 診得腎之病脈也라 面黑은 腎之色也요 恐은 腎之志也요 欠은 氣相引也라 腎은 居下하는 故로 臍下有動氣하고 生氣根於腎病則氣道濇而小便上行하니 故로 逆氣라 腎은 居近於小腹하니 故로 小腹急痛하고 泄如下하며 重腰下沈也라 腎은 主骨하니 腎病則足脛寒而逆하니 得腎脈하고 而得腎之病症이라 斯爲腎病은 苟或不然하나 登可謂腎之病哉아

《經釋》²¹⁾

[1-6] 三部九候는 詳素三部九候論한데 陰陽은 詳制四難하고 輕重은 詳制五難하고 六十首는 見素方盛衰論하니 王冰注에 謂 其義不存하나 或謂卽各王六十日之義라 一脈變爲四時는 詳十五難하나 但諸設難하나 下文俱無發明이니 疑有脫誤라

[7-10] 凡人所受傷이면 爲病所以驗이니 其病者는 爲證蓋病合而證分也라

[11-12] 五臟脈體는 詳十三難이라

[13] 肝與膽合하니 膽은 爲清淨之府인 故로 善潔이라

[14-15] 素陰陽應象大論에 肝在色爲蒼이요 在志爲怒라

[16-17] 素刺禁論에 肝生於臍左니 肝左之位也라 動氣는 眞氣不能臧하여 而發現於外也라 牢者는 氣結而堅하고 痛者는 氣鬱而滯也라

[18] 滿閉는 寒也라 蓋肢節은 皆屬於肝이니 左氏傳에 云 風淫末疾이라

[19] 靈經脈篇에 云 足厥陰은 循陰股이고 結於陰器하니 故로 病見於溲便也라

[20] 靈九鍼篇에 云 肝主筋이니 故로 病筋也라

[21-22] 是指上文은 病證而言如無此病證인 則雖見肝脈而受病하나 實不在肝也라

[23-24] 素心在色이 爲赤이라

[25] 心氣通於舌하니 火上炎則乾也라

[26] 素心在聲爲笑니라

[27] 臍上心之位也라

[28-29] 病在本藏也라

[30] 靈經脈篇에 云 하기를 手少陰脈入掌內면 故로 掌中熱이라 哕은 乾嘔也라 素至眞要大論에 諸逆衝上皆屬於火라

[31-34] 素脾在色은 爲黃이라

[35] 噫卽噯氣니 靈口問篇에 云 하기를 寒氣客於胃하고 厥逆從下上散하여 復出於胃 故로 爲噫라 脾與胃合하여 故로 病同也라

21)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p.13-14.

- [36] 素脾在志爲思라
- [37] 素脾在竅爲口 故로 主味니라
- [38-39] 當臍脾位乎는 中也라
- [40] 素金眞言論에 腹爲陰이니 陰中之至陰은 脾也 故로 病在腹이라
- [41] 脾主磨食이라
- [42] 脾主肌肉이라
- [43] 素痿論은 陽明主束骨而利機關하니 脾與胃合 故로 亦主節이라
- [44] 勞倦亦屬脾也야라
- [45] 脾主四肢라
- [46-49] 素肺在色爲白라
- [50] 靈口問篇에 陽氣는 和利滿於心하고 出於鼻 故로 嚏라 肺氣通於鼻 故로 善嚏也라
- [51-52] 素肺在志는 爲憂하고 在聲은 爲哭이라
- [53-54] 素刺禁論에 肺藏於右하고 臍右는 肺之位也라
- [55] 肺主氣하니 氣逆卽喘咳라
- [56] 肺主皮毛라
- [57-60] 素腎在色爲黑이라
- [61] 素在志爲恐이라
- [62] 靈口問篇에 陰氣積於下하니 陽氣未盡하고 陽引而上하고 陰引而下하니 陰陽相引 故로 數欠라 又云 腎主爲欠이라
- [63-64] 腎은 居最下하니 臍下는 腎之位也라
- [65] 下氣不藏卽逆上이라
- [66] 腎治於下 故로 病在小腹이라
- [67] 滑氏云如讀爲而라 腎主二陰하니 下重하고 氣下墜不收也라
- [68-69] 靈經脈篇에 足少陰腎之脈은 循內踝之後하고 別入跟中以上踰內 故로 病如此라

《懸解》22)

[1-10] 三部九候는 見十八難이라 陰陽은 見四難이라 輕重은 見五難이라 六十首는 素問·方盛衰論 聖人持診之道는 先後陰陽而持之

하니 奇恒之勢는 乃六十首라 蓋上古診法也라 一脈變爲四時하니 卽十五難春弦하고 夏鉤하고 秋毛하며 冬石也라 脈法不一하니 離聖久遠하고 人各自是其法하니 何以別其是非長短也오 是其病은 有內外證이니 言凡病但以內外之證驗之리니 自得其眞은 不必拘拘於諸法也라

[11-22] 肝脈弦하고 其色靑하고 其志怒하니 凡物稍不如意則怒生하니 是爲善潔이라 其爲在臍左하고 其主根하고 其性疎泄이라 風木鬱遏하니 疏泄不行하니 則腹滿便閉하고 前後皆阻니 四肢轉筋也라

[23-32] 心脈鉤하고 其色赤하고 其聲笑하며 其位在臍上이라 哕은 嘔而無物하니 心煩作惡也라

[33-47] 脾脈代하고 脾脈緩하며 隨四時更代하며 弦鉤毛石之中而有緩象이니 是卽脾脈이나 脾不主時也라 其色黃이요 其志思요 其主味요 其位當臍니 其主四肢라 脾爲太陰濕土하니 濕旺脾鬱하고 不能消化水穀하니 則腹滿食停하며 脾鬱腹滿하니 則胃氣上逆하고 而生噦噫라 體重節痛하고 濕流關節하니라 怠惰嗜臥는 脾土困倦한 則欲臥眠이니 四肢不隨也라

[48-58] 肺脈毛요 其色白이요 其竅鼻요 肺氣逆衝이면 出於鼻竅니 則爲嚏라 其志悲요 其聲哭이요 其位在臍右요 其藏氣요 肺氣阻逆이면 則生喘咳라 其主皮毛요 皮毛感傷이면 則生寒熱이라 洒淅은 皮毛振慄이라

[59-70] 腎脈石이요 其色黑이요 其志恐이요 其性蟄藏이라 日暮陰隆하고 腎氣上引하며 陽將蟄而未蟄하며 陰引而下하고 陽引而上하니 則爲欠이라 欠者는 開口呵氣也라 其位在臍下요 木生於水하고 水寒不能生木하니 甲木上拔하니 則病逆氣하고 乙木下衝하면 則小腹急痛이요 泄而下重이라 其主骨髓요 骨髓失溫이면 則足脛寒逆也라

《闡註》23)

23)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18-19.

22)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637-639.

[1-10] 此越人謂去古軒岐既久하면 醫者各執己見이니 各立成法이라 將何以別其是非邪리오 脈有三

部하고 至變爲四時하니 俱各入之成法也라 謂不必別其孰是孰非하면 但以下文病之內外證이면 辨別脈之是非리오 卽軒岐之旨는 言言可據矣니 卽此可見軒岐而下 中流砥柱之書면 惟此爲最也니 六十首古經名이라

[11-22] 此는 診得肝之病脈也라 肝臟淸淨하니 故善潔이라 面靑은 肝之色也라 善怒노 肝之志也라 肝屬木而左니 故臍左有動氣라 牢는 堅硬也라 肝病은 肝氣不行 故로 四肢滿閉淋澀라 小便淋瀝而不快也라 便難은 大便難也라 轉筋은 筋急也라 有肝之色은 辨肝之證이요 是肝之脈也라 下倣此라

[23-32] 此는 心色이요 心病이요 心脈也라 心在上 故로 動氣在上이라 哕은 音噎이요 張註有聲無物이라 心中熱故發哕이니 卽當於決切爲是니 矣考正이라

[33-47] 此는 脾色이요 脾脈이요 脾病也라 脾位居中이니 故動氣當臍니라

[48-58] 此는 肺色이요 肺脈이요 肺病也라 右는 屬肺라 故로 動氣在右라 肺主皮毛하니 故寒熱이라

[59-70] 此는 腎色이요 腎脈이요 腎病也라 腎은 在下니 故로 動氣在下라 欠者는 氣相引也라 泄如下重者는 大便時腰下沈而窘也라 以上五條는 言五臟脈色病之定體요 證字는 病字요 俱有內外之義라

《正義》²⁴⁾

[1-10] 脈有三部九候는 見後十八難이라 陰陽은 詳第四難이라 輕重은 詳第五難이요 六十首는 見素問方盛衰論이라

王註謂奇恒六十首나 今世不存이라 或謂卽各旺六十日之義라 一脈變四時하니 卽十五難에 春弦이요 夏鉤요 秋毛요 冬石也라 然이나 脈法不一이라 離聖久遠이 各者는 其法이라 何

以別其是非長短也리오

是其病有內外證이라 言凡病但以內外之證驗之니 自得其眞은 不必拘於諸法也라

[11-22] 得肝脈이면 震得弦脈也니 肝與膽合은 爲淸淨之府라 故善潔이라 靑者木之色이요 肝屬木이니 故面靑이라 肝在志爲怒니 此外證之色脈情好也라 臍左는 爲肝木左升之部 動氣니 眞氣不能藏而發現於外也라 牢者는 氣結而堅이요 痛者는 氣鬱而滯也라 滿은 閉塞也라 筋急卽四肢滿脹이 左氏傳云에 風淫末疾者가 是也라 厥陰脈은 循陰器하고 肝病故로 澀便難라 轉筋者는 肝主筋이라 故病筋이라

此는 內證之部屬이니 及所主病也라

[23-32] 得心脈하면 診得鉤脈也라 心在色은 爲赤이니 故面赤이라 心氣는 痛於舌하고 火上炎하는 故口乾이라

心在聲이 爲笑니 故喜笑라 此外證之色脈情好也라 臍上心之部 動氣니 按之牢痛이요 心煩이니 乃心包絡受邪면 非眞心病也라 若心病이면 卽旦占夕死요 夕占旦死矣라 手厥陰心包絡之脈은 行於掌心하니 故掌中熱哕하고 乾口也라 心病은 火盛하니 故哕이라 此는 內證之部屬이니 及所主病也라

[33-47] 得脾脈이면 診得緩脈也라 脾屬土하니 在色爲黃이요 故面黃이라 噫噎氣也라 靈樞口問篇曰 寒氣客於胃하고 厥逆하며 從下上散하면 復出於胃니 故爲噯라 脾與胃合인 故로 同病也라 脾在志爲思니 故善思라

脾在窺爲口니 故善味라 此外證之色脈情好也라 脾位平中이니 故動氣는 當臍而牢痛也라 脾主運行이요

運行不健이요 故腹脹滿하고 食不消也라 脾主肌肉하니 故體重이라 陽明은 主束骨而利機關이라 脾與胃合하니 故主節痛이라 勞倦傷脾하고 濕旺脾鬱이니 皆主苔墮嗜臥也라 脾主四肢하니 故四肢不收라 此內證之部는 屬及所主病也라

[48-58] 得肺脈이면 診得毛脈也라 肺는 在色爲白이니 故面白이라 靈樞口問篇에 曰陽氣和利滿於心하니 出於脾라 故噯라 肺氣通於

2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0-32.

鼻하니 故善嚏라 肺在志爲憂니 故悲愁不樂하고 在聲爲哭이라 故欲哭이라 此外證之色脈情好也라 臍右爲肺氣이요 右降之部니 動氣按之牢痛者는 肺氣結也라 肺主氣하고 氣逆이면 故病喘咳라 肺主皮毛니 故洒淅寒熱이라 此內證之部屬이면 及所主病也라

[59-60] 得腎脈이면 診得石脈也라 腎在色爲黑하고 故面黑하고 腎在志爲恐이면 故善恐이라 靈樞口問篇曰陰氣積於下하고 陽氣未盡이니 陽引而上이요 陰引而下니 故數欠이라 是腎主欠이라 此外證之色脈情好也라

腎居最下니 臍下腎之位라 腎氣結이면 故로 動氣 按之牢痛이라 腎氣不足이면 傷於衝脈이니 故病逆氣라

少陰之脈은 循少腹이니 故少腹急痛也라 腎者는 胃之關이니 今氣虛라 故爲下重泄이면 謂食畢卽思圜也라

靈樞經脈篇曰 足少陰腎之脈이면 循內踝之後면 別入跟中이니 以上踰內니 故病足脛寒而逆이라 此內證之部는 屬及所主病也라 泄如下重은 如字는 滑氏易作而字니 極是라

《匯海》25)

[1-10] 滑伯仁註 謝氏曰此篇은 問三部九候以下共六件이나 而本經並不答所問이니 似有缺文이라

今詳三部九候면 則十八難中第三章言之하니 當屬此篇錯簡在皮라 陰陽見四難하고 輕重見五難하고 一脈變爲四時는 卽十五難에 春弦하고 夏鉤하고 秋毛하고 冬石也니 六十首는 素問王注에 今世不存인 則失其傳者는 由來遠矣라 答辭與問不相蒙이라 當別有問辭也라

[11-19] 得肝脈이면 診得弦脈也라 肝與膽合爲清淨之府니 故로 善潔이라 肝爲將軍之官이니 故善怒라 面青은 肝之色也라 此是證之色脈情好也라 臍左는 肝之部也니 按之牢若痛이요 謂其動氣按之堅牢而不移或痛也라 厥陰脈은 循陰器하니 肝病故溲便難하고 轉筋者는

肝主筋也니 此內證之部屬에 及所主病也라

[2-10] 黃坤載註 脈法不一하니 離聖久遠이라 人各者는 其法이면 以別其是非長短也라 是其病은 有內外證이니 言凡病但以內外之證驗之라 自得其眞에 不必拘拘於諸法也라

[20-27] 張天成註 此는 言診得心之病脈也라 面赤者는 心火之色見也라 口乾은 心火旺也라 喜笑는 心之與聲也라

心位在上이니 故로 臍上有動氣라 掌中은 心之經也라 腕者는 有聲而無物이라 心中熱故로 發腕이라 得心之脈하면 得心之證이오 得心之病하니 是心病也라 得其脈而不得其病證非心病也라

[46-47] 徐靈胎註 面黃은 脾在色爲黃也라 噫卽噯氣라 靈口問篇에 云寒氣客於胃는 厥逆從下上散하고 復出於胃니 故爲噫이라 脾與胃合이면 故病同也라 善思는 脾在志爲思也라 善味는 脾在竅爲口니 故主味也라

當臍痛이면 脾位乎中也니 腹脹滿이라 靈素金匱眞言論에 腹爲陰이요 陰中之至陰이 脾也니 故病在腹이면 食不消라 脾磨食也라

體重은 脾主肌肉也라 節痛은 素痿論에 陽明主束骨而利機關하니 脾與胃合인 故로 亦主節也라 怠惰嗜臥는 勞倦亦屬脾也라 四肢不收는 脾主四肢也라

[48-58] 面白은 肺在色爲白也라 善嚏는 靈口問篇에 陽氣和利滿於心出於鼻니 故로 嚏라 肺通於鼻故로 善嚏라 悲愁不樂欲哭이라 肺在志爲憂요 在聲爲哭也라 臍右는 肺之位也라 肺主氣하고 氣逆則喘咳요 洒淅寒熱이니 肺主皮毛也라

[59-70] 虞庶註 沈呶而滑은 腎之脈也라 黑色은 腎之色也라 在志曰恐이요 巨陽虛則欠이니 腎之積은 名曰賁豚이라 在臍下니 故云在臍下라 腎氣不足은 傷於衝脈故로 氣逆이라 腎者는 足少陰之脈이니 循小腹與足厥陰足太陰三陰交於臍下라 今病故小腹急痛也라 五泄之候腎爲後重泄이니 腎者胃之關이라 今氣虛故로 爲下重泄이니 謂食畢思急圜이라 足內踝上五寸間에 乃足少陰之動脈인 故로 足脛寒而

2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49-52.

逆이라 通評虛實論에 曰氣逆者는 足寒也라

[16-21] 馮氏註 肝氣瞋鬱이면 則四支滿閉 하니 傳曰風淫末疾이 是也라 厥陰脈循陰器하고 肝病故로 溲便難轉筋者는 肝主筋也라 此內證之部屬及所主病也라

《古義》26)

按컨데 此篇所言內外證이라 非는 謂病症表裏니 卽謂診候內外也라 何則이라면 面青善潔善怒라 豈止外證은 四肢滿하고 閉淋溲便難하고 轉筋은 豈止內證은 餘可類推니이다 所謂外證者는 醫坐病人之側에 以爲望聞也라

內證者는 親逼病人에 按腹診脈하며 以爲問切也라 概而言之하면 肝曰面青善潔이요 心曰面赤口乾이요 脾曰面黃善思善味고 肺曰面白怨愁不樂이며 腎曰面黑善恐이니 是卽望也라 肝曰善怒요 心曰善笑요 脾曰善噫요 肺曰善噓요 腎曰善欠이니 是卽聞也라 肝滿閉요 心曰煩心心痛이요 脾曰腹脹滿이요 肺曰喘咳寒熱이요 腎曰逆氣요 小腹急痛이니 是卽問也라 肝曰臍左有動氣이고 心曰臍上이요 脾曰當臍며 肺曰臍右고 腎曰臍下니 是卽切也니이다 望聞問切之義는 詳見第六十一難이나 但彼所言이면 則特舉其義니 以示醫者는 此則直對病人으로 以實其事焉에 由之觀之하여 所謂證者는 言證據之證이지 而非言病證之證也 明矣라 滑註 隨文解之에 內外證之義는 不心何義니 讀者察諸하라

《衰腋》27)

[1-9] 三部九候는 見十八難하고 陰陽은 見四難하고 輕重은 見五難하며 一脈變爲四時니 卽十五難에 四時之脈也라

六十首는 古經篇名이니 今失其傳이나 按컨데 言五者는 各是一診法으로 以其去聖世久遠으로 因各自診法이니 難得病原洞然이나 今何以分別之니 蓋欲得易曉之法也라

[10] 按컨데 蒼意蓋謂하면 各自診法而知其

病矣나 且其病 必有內外證候而應之하니 當參驗以明知 無疑也라 是者語辭니이다

[11] 問其病之狀이라

[12-22] 若而通用커늘 牢若痛者는 言牢堅而疼痛也라 滑氏曰 得肝脈이면 診得弦脈也요 肝與膽合爲清淨之府니 故善潔이라 肝爲將軍之官이니 故善怒라 喜猶喜好也라 面青肝之色也니 此外證之色脈情好也라 臍左는 肝之部也요 按之牢若痛者는 謂其動氣按之면 堅牢而不移或痛也라 馮氏曰 肝氣瞋鬱이면 則四支滿閉니 傳曰 風淫末疾이 是也라 厥陰脈循陰器하니 肝病인 故로 溲便難이라 轉筋者는 肝主筋也라 此內證之部屬은 及所主病也라 博按에 肝脈은 非止弦이니 以陰陽則牢而長也요 以輕重則與筋平者也라 以四時則弦也니 乃應上丈各自診法也니 下倣此니라

[23-32] 滑氏曰 掌中은 手心主脈이니 所過之處에 蓋眞心不受邪나 受邪者는 手心主爾라 腕은 乾嘔也니 心病則火盛인 故로 腕이라 經曰 諸逆衝上皆屬於火요 諸嘔吐酸은 皆屬於熱이라

[33-41] 面黃은 脾之色也요 脾病則水穀不化니 故善噫요 噫者는 飽食之氣也라 脾在志는 爲思요 脾主五味하니 脾氣不足이면 而食無味라 故로 好思는 有味物也라 腹脹滿과 食不消는 脾氣之虛也라 體重節痛과 怠惰嗜臥者는 脾濕有餘니 敦阜爲邪也요 脾主四肢니 故四肢不隨라

[48-58] 肺屬西方이요 於色爲白가 脾胃는 肺之竅니 故肺病善噓요 其志는 悲요 其聲은 哭이니 故悲愁欲哭은 肺主氣故其病은 喘息咳嗽作矣가 洒淅寒熱이요 肺主皮毛也라

[59-60] 腎氣不足則爲恐이요 陰陽相引則爲欠이요 其脈起足心에서 循內踝하고 入小腹하면 故逆氣라 小腹急痛과 泄如下迫後重은 名曰大瘕泄이니 是腎之泄也라 陰氣不足인 故로 足脛寒而逆矣라

26)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16-17.

27) 加藤宗博, 虛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60-66.

【考察】

本難에서는 脈學의 各種 不同한 理論을 說明하고 疾病을 診斷함에 있어서 診脈뿐 아니라 內外의 各種症狀을 合한 後에야 비로소 어느 臟에 病이 있는 지를 斷定할 수 있다.

여러 註釋家들의 意見을 定理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三部九候에서 大部分 各家들의 意見이 비슷하여 丁德用은 “三部는 寸 關 尺이며, 九候는 浮 中 沈이다.” 고 하였으니, 곧 寸 關 尺 三部가 있고 그 各各의 部位에 浮 中 沈 三候가 있으니 三이 셋으로 九가 되므로 三部九候라 하는 것이다.

六十首에서는 歷代醫家들의 觀點이 달라 아직 統一된 意見이 나오지 않았다. 呂廣은 “首는 頭首이니, 三部의 頭部로 부터 始作하는 것은 맥이 六十首라 있다.” 고 하였고 丁德用은 “六十首라는 것은 十難에서 一脈이 十變한다고 한것이 비로 이것으로 사람에게는 六脈이 있으니 一脈이 十變하면 六十首가 된다. 라고 하였다. 滑伯仁은 “六十首는 《內經.方盛衰論》의 聖人持診之道, 先後陰陽而持之, 奇恒之勢, 內六十首” 에 대한 王冰의 注를 上告해 보면 奇恒勢六十首는 지금은 없는데 그것은 失傳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現在는 丁德用의 說을 따라 左右의 寸 關 尺 六部가 各各의 部位마다 十變하여 六十이 되므로 六十首라고 한다.

內外證에서 騰萬卿은 “本難에서 말한 內外證은 病症의 表裏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진단에 있어서 內外를 말한다. 왜냐하면 清潔을 좋아하고 화를 잘 내는 것이 어찌

外證에 그치며, 四肢가 脹滿하며 大小便이 困難하며 轉筋이 되는 것이 어찌 內證에 그치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이고써 보면 外證이라는 것은 病證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醫師가 脈診과 聞診을 通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第十七難(脈과 證의 相應하는 바와 相反하는 바의 豫候에 關한 論議)

[原文]

十七難曰^[1] 經에 言病或有死^[2] 하고 或有不治自愈^[3] 하고 或連年月不已^[4] 이라하니 其死生^[5] 存亡^[6] 이 可切脈而知之耶^[7] 아 然하다 可盡知也^[8] 라

診病若閉目不欲見人者^[9] 는 脈當得肝脈^[10] 이 強^{<1>}急^[11] 而長^[11] 이나 而反得肺脈이 浮短而瀦者^[12] 는 死也^[13] 오

病若開目而渴^[14] 하고 心下牢者^[15] 는 脈當得緊實而數^[16] 이나 反^{<2>}得沈瀦^[17] <3>而微^[2]者^[18] 도 死也^[19] 오

病若吐血^[20] 하고 復衄衄^[3]血者^[21] 는 脈當^[22] 沈細^[23] 나 而反浮大而牢者^[24] 도 死也^[25] 오

病若譫言妄語^[26] 하고 身當有熱^[27] 하면 脈當洪大^[28] 나 而反手足厥逆^[29] 하고 脈沈細而微者^[30] 도 死也^[31] 오

病若大腹而洩者^[32] 는 脈當微細而瀦^[33] 이나 反緊大而滑者^[34] 도 死也^[35] 라

[解釋]

十七難에 이르기를 經에 病이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或은 治療하지 않아도 스스로 낫는 境遇도 있고, 或은 몇 해 몇 달을 治療해

〈五藏疾病의 症狀分類歸納表〉

五藏	面色	情志	腹診	證狀
肝	青	善怒	臍左有動氣, 按之牢若痛	善潔, 四支滿閉, 癢洩便難
心	赤	善笑	臍上有動氣, 按之牢若痛	口乾, 掌中熱而腕, 煩心心痛
脾	黃	善思	當臍有動氣, 按之牢若痛	善噫, 善味, 四肢不收, 腹脹滿, 食不消, 體重, 節痛, 怠惰嗜臥
肺	白	悲愁不樂欲哭	臍右有動氣, 按之牢若痛	善噎, 喘咳, 洒淅寒熱
腎	黑	善恐	臍下有動氣, 按之牢若痛	善欠, 其足脛寒而逆, 逆氣, 小腹急痛, 泄如下重

도 낮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生死存亡을 脈을 집어 알 수 있겠는가?

그렇다. 모두 알 수 있다. 病을 診斷할 때 萬若 患者가 눈을 감고 다른 사람 보기를 싫어할 경우는 肝脈이 強急하면서 長해야 하나 肺脈을 얻어 浮短하면서 濇한 것은 죽게 된다. 病이 만약 눈을 뜨고 口渴症이 있으면서 心下가 牢할 경우는 脈象이 緊實하면서 數해야 하나 反對로 沈濇하면서 微한 脈象을 얻으면 죽게 된다. 病이 만약 吐血을 하면서 또 다시 鼻出血이 있을 경우는 脈象이 沈細해야 하나 反對로 浮大하면서 牢한 경우는 죽게 된다. 萬若 病이 譫語 妄言할 경우는 몸에 熱이 있으면서 脈은 洪大하나 反對로 手足이 厥逆하고 脈이 沈細하면서 微한 경우도 죽게 된다. 萬若 腹部가 脹滿하고 泄瀉가 날 경우 脈象은 微細하고 濇하나 反對로 緊大하고 滑하게 되면 죽게 된다.

[出處] 출처없음.

[校勘]

〈1〉 強 : 《脈經》의 券五에 扁鵲診諸反死 脈要決第五에 “弦”이라 하였다. 《古義》에도 “弦”으로 되어 있다.

〈2〉 反 : 明本の 《難經》에는 위에 “而”가 있다.

〈3〉 濇 : 明本の 《難經》에는 “濡”로 되어 있다.

[子句解]

(1) 強急 : 弦急의 意味가 있다.

(2) 微 : 脈象의 名稱으로 脈이 軟弱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하며 模糊하여 깨닫지 못한 脈을 일컬어 微脈이라 한다.

(3) 衄衄 : 衄는 鼻塞한 것을 말하며, 衄은 鼻出血을 意味한다.

[各家註]

《本義》²⁸⁾

[1-8] 此篇은 所問者 | 三이니 答云은 可盡知也니라 而止答病之死證은 餘無所見이니 當有闕漏니라

[9-13] 肝開窺於目한데 閉目不欲見人하면 肝病也니 肝病見肺脈하니 金剋木也라

[14-19] 病實而脈虛也라

[20-25] 脫血脈實이니 相反也라

[26-31] 陽病見陰脈하니 相反也라

[32-35] 洩而脈大하니 相反也라 大腹은 腹脹也라

《集注》²⁹⁾

[1-11] 丁曰 此是肝之病證인 故로 脈強急而長이라

楊曰 強急은 猶弦急이라

虞曰 肝木之脈은 弦軟而長한데 今見強急病은 乃如是라

[12-13] 丁曰 浮短濇者는 是肺脈이니 此者는 金當勝木인 故로 知死也라

楊曰 肝爲木이요 肺爲金이니 肝病得肺脈은 眞鬼來剋하니 金勝木이니 故必死也라

[14-19] 丁曰 心之病證은 今反見腎脈이니 心은 火요 腎은 水니 水來剋火인 故로 知死也라

楊曰 心病得腎脈은 水勝火인 故로 死也라 按之하면 短實而數하니 有似切繩謂之緊也라 按之하면 短小不動搖하니 若有若無 輕手하면 乃得이나 重手면 不得이니 謂之微也라

虞曰 病開目而渴은 心下牢니 脈又緊實而數은 此曰 陽病得陽脈이요 脈不相反이면 今見沈濡而微이니 謂陽病得陰脈인 故로 曰死也라

[20-25] 丁曰 此者肺脈之病證이니 今反見心脈은 心은 火요 肺는 金이니 火來勝金인 故로 知死也라

虞曰 血屬陰이니 吐血衄血은 脈得沈細고 此謂脈與病相應하니 今反浮大而牢는 與病相

28)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48-50.

29)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107-114.

反인 故死也라

[26-31] 丁曰 此病은 是心病之證이라 今反手足厥은 脈沈細而微者니 是水勝火即知死也라

楊曰 按之하면 遲但小니 謂之細 라

虞曰 肺主聲하고 心主言하니 今脈洪大는 是知熱乘於心하여 肺邪受之인 故로 讒言妄語이라 肺主皮毛하니 今邪客於衛氣이면 不得宣通乃身熱이라 夫如是病與脈相應은 今手足厥逆에 脈沈細而微한데 陽病得陰脈인 故로 云必死也라

[32-35] 丁曰 此病은 脾土之證候니 緊大滑者는 是肝木來勝土인 故로 知死也라 此經은 不言腎水之證한데 闕此一藏也라

楊曰 凡此五者는 病脈相反인 故로 爲必死니 經云五逆者는 死라 此之謂也라

虞曰 濕氣勝則脹이니 脾不禁인 故洩이라 脈微細濡하고 病脈相承하여 緊大而滑이니 此曰相反이라 如此之候로 其死明矣라

《圖註》30)

[1-8] 死者는 不可治也라 不治는 自愈니라 不待砭刺醫藥而病自愈也라 連年月不已면 久病也라 人之受病은 有是三者니 其生而死요 存而亡이요 診其脈하면 可以知其病也라 詳見下文이라

[9-13] 素問曰 目乃肝之竅요 又曰 目受益而能視니 閉目하면 不欲見人이니 肝臟病矣니라 強急而長은 肝之之病脈리也 脈病欲相應故고로 曰 當得苟肝之病하고 而反得肺之脈은 是知肝이요 爲木而肺屬金이요 金勝木은 其病死也라 若弦急而長은 更帶子助病이니 不治自愈라 若帶舞柳 故로 連年月不已餘仿此라

[14-19] 開目而渴者는 張其目而欲飲也라 心下牢者는 是邪實也라 此乃心肝二經之病에 緊屬肝木이요 數은 屬心火요 沈濡는 屬水니 水來勝火 故로 知死也라

[20-25] 肺主氣하며 血爲氣配니 凡血病者

는 多起於氣하고 脫血則脈虛故로 當沈細요 浮大而實者음 火脈也니 火勝則肺金愈衰하니 而血病愈甚矣인 故로 知其死라

[26-31] 讒言妄語症에 有熱病也라 洪大脈은 屬火也니 此脈與病症相應이니라 今反手足厥冷은 脈沈細而微요 水勝火矣라 是는 陽病見陰脈이니 其死也名矣라

[32-35] 大腹而洩은 脾病也라 脾受穀하고 味以灌四旁하니 病則虛요 脈當微細而濡이나 反緊大而滑은 是相勝也라 脈不應病故死也라

《經釋》31)

[1-4] 此는 亦錯이니 引經語하면 非經之全文也라

[5] 一作生死라

[6-9] 此는 肝病現證에 肝與膽合하니 肝病則膽虛 故로 閉目不欲見人이라

[10-11] 此는 脈之本脈이라

[12-13] 證은 屬木이요 脈은 屬金이니 爲剋賊也라

[14-15] 此는 心病現證인데 心主熱하고 熱甚則開目而渴也라

[16] 此는 心之本脈이라

[17] 一作濡라

[18-19] 此는 腎之本脈이니 證은 屬火요 脈은 屬水니 爲剋賊也라

[20-25] 此는 又一義에 不以生剋言이니 所謂病虛 脈實 故로 死也라 靈玉版篇에 云기를 衄而不止면 脈大是三逆即此義也라

[26-31] 此는 則病實脈虛也라 手足厥冷에 兼證言之也라

[32-35] 此는 亦病虛脈實也라 靈玉版篇에 云 腹鳴而滿四肢하고 清泄이면 其脈大하니 是二逆也라

《懸解》32)

31)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14.

32)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639-640.

30)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p.28-30.

[1-8] 經 素問에 脈要精微하고 平人氣象諸論이라

[9-13] 肝竅於目하고 閉目不欲見人하면 肝木陷也니 故當得肝脈이라 而反得肺脈者는 死니 金克木也라

[14-19] 肝膽同氣니 開目而渴하고 心下牢者는 膽木上逆也니 故로 當得膽脈이라 而反得腎脈者는 死니 膽木化氣於相火면 水克火也라

[20-25] 吐血하고 衄血은 肺胃上逆하니 收氣不行也라 而反得心脈者는 死니 火克金也라

[26-31] 譫言妄語은 心火上炎也라 故身當有熱하면 脈當洪大라 而反得腎脈者는 水克火也라 水勝火熄而譫言者는 敗也니 是以死라

[32-35] 大腹而泄者는 脾土濕陷而木賊也라 微細而濡은 肺脈也라 而反得肝脈者는 死니 木剋土也라

《闡註》³³⁾

[1-8] 此는 言或有或死니 卽下文之相剋脈은 不治自愈라 卽十三難之相生脈은 或連年月이니 卽五十五難積聚病之相應인 故로 曰可盡知也라

[9-13] 此節은 論金克木之脈이라 下四節은 兼參證實脈虛하고 脈實證虛之義라

[14-19] 此는 肝心二經之病이라 應得緊實數之하면 肝心脈이요 反得沈濡微之하면 腎肺脈이니 則金水來剋木火 故當死也라

[20-25] 肺主氣하고 血爲氣配니 凡土衄은 必有於肺하고 必傷於氣하니 則脈當沈細爲順이요 反得浮大牢之火脈은 則火來剋金인 故死也라

[26-31] 證은 屬陽이니 應得洪大하고 屬火之脈順이라 若反得沈細는 屬水之脈이니 則水來剋火 故死也라 是則陽病見陰脈者는 死니 其理同也라

[32-35] 脾病則土虛는 應得微細而濡이니

心肺之脈也라 火生土요 土生金則吉이요 反得緊大滑脈인데 緊大滑은 肝腎之脈也라 木剋土요 水克火인 故로 死也라 以上言剋制則死니 以起下章關格剋制之義라

《正義》³⁴⁾

[1-8] 此는 引素問脈要精微論平人氣象論語하여 錯雜言之하니 非經之全文也라 所問三者는 答曰盡可知也라 而下文止答病之死證이니 餘無所見한데 或有關簡歟라 抑不治自愈면 卽十三難之相生脈이니 連年月不已 卽五十五難之積聚病歟라 未可知也니라 故俟參考라

[9-13] 肝은 開竅於目이니 閉目不欲見人이요 肝病也라 然肝之病은 脈當弦急而長이니 今以肝病而診하면 得浮短而濡之肺脈이니 乃金來剋木也라 故主死라

[14-19] 開目而渴者는 心主熱이요 熱甚則開目而渴也라 心下牢者는 心痛現證이니 是實邪也라 當得緊實而數之脈은 今見沈濡而微之腎脈이니 乃水來剋火한데 況陽病而得陰脈하면 不死何待라

[20-25] 夫血虛證也에 其脈當沈細인데 而反見浮大牢實之脈이면 是陰病而得陽脈이니 病虛脈實인 故로 主死라 靈樞玉版篇曰 衄而不止면 脈大하니 是三逆 卽此義也라

[26-31] 譫妄은 熱證也니 身當有熱하고 脈當洪大하니 今反見手足厥冷은 脈來沈細而微니 此病實脈虛也라 故死라

[32-35] 大腹而泄者는 脾濕下陷하고 脈當微細하니 而反見滑大之脈은 是亦病虛脈實矣라 靈樞玉版篇曰 腹鳴而滿하고 四肢清洩하고 其脈大는 是二逆이니 卽此義也라

《匯海》³⁵⁾

滑伯仁曰 [1-8] 此篇은 所問者 | 三이니 答云은 可盡知也라 而止答病之死證은 餘無所見이니 當有關漏라

33)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19-20.

3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2-33.

3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52-54.

徐氏經釋〔1-8〕亦有滑氏之說이라

徐大春註〔33-34〕此亦病虛脈實也라 靈玉版篇曰 腹鳴而滿하고 四肢清泄하고 其脈大면 是二逆也라

張天成註〔10-13〕素問曰 目乃肝之竅요 又曰 目受血而能視한데 閉目이면 不欲見人이요 肝臟病矣라 強急而長은 肝之病脈也라 脈病欲相應인 故로 曰 當得은 苟肝之病이나 而反得肺之脈見이면 知肝屬木而肺屬金이요 金勝木이니 其病死也라

虞庶註〔14-19〕病開目而渴은 心下牢요 脈又緊實而數이니 此曰陽病得陽脈이요 脈不相反이면 今見沈軟而微니 謂陽病得陰脈이라 故曰死也라 6濕氣勝即脹이요 脾不禁故泄이요 脈微細濡이면 病脈相承하니 緊大而滑이라 此曰相反이니 如此之候에 其死明矣라

丁履中註〔20-25〕肺主氣요 血爲氣配니 凡吐衄必由於肺요 必傷於氣면 則脈當沈細而順이요 反得大牢之火脈은 則火來剋金이니 故死也라

黃坤載註〔26-31〕謔言妄語은 心火上炎也라 故身當有熱하고 脈當洪大한데 而反得腎脈者는 水剋火요 水勝火熄이니 而謔言者는 神敗也요 是以死라

張山雷箋正曰〔32-35〕泄爲虛證에 更加腹大이면 苟非脾胃皆憊니 何以致此요 故脈以微細而濡者爲宜나 若反緊大而滑이면 則非特證虛脈實이니 彼此不稱하면 抑且有剛無柔요 直是全無胃氣之眞臟脈矣라 所以謂之死候니라 此與泛論泄瀉下利者는 病情確有不同이라 蓋泄利固時 有實證은 脈之緊大而滑이요 未必皆不可治라 惟既泄利而兼之腹大니 則不可同日而語矣라

《古義》36)

〔1-2〕內經에 無所見이라

〔2-11〕本藏脈은 名曰從이라 從者는 當愈라

〔12-13〕相克脈은 名曰逆이라 逆者는 當死라

〔14-16〕陽病에 見陽脈이면 吉이라

〔17-19〕陽病에 見陰脈이면 凶이라

〔20-22〕脈與病은 合이라

〔23〕陰病은 見陰脈이라

〔24-25〕陰病은 見陽脈이라

〔26-28〕實病은 見實脈이면 未危라

〔29-31〕實病은 見虛脈이면 危라

〔32-33〕虛病은 見虛脈이라

〔34-35〕虛病은 見實脈이라

〔1-35〕按컨데 此篇은 所問三件이요 而答止見死證一節이나 他無所見이니 疑是脫簡이라 王文潔云 肝病見其本藏脈이면 則病自己라 若見相克脈이면 乃死요 餘可類推라 據王設은 則自己之證이니 含蓄在其中이라 滑註云에 第十八難은 所謂人病沈滯久積聚一條라 當此篇은 連年月而不已之答이니 文錯簡在彼라 今且從之하면 舊本第十六至十八에難 各篇問答이니 殊不相蒙이니 疑是古經殘缺이라 不然이면 則呂廣重篇粗耳니라 今因滑氏諸家之說에 移易正文이면 略是其義爾니라

《衰腋》37)

〔1-8〕博按컨데 答意但病之輕重은 與診之逆從耳니라 推之면 則所問者는 可盡知也라 蓋病輕而從이요 則可不治而自愈요 逆則應連年月不已면 如病重而從이니 則可治而愈요 逆則死矣라 今舉其逆者는 示之니 餘可類知也라 是는 越人所引而未發也라 學者는 當潛心焉니라

〔9-13〕肝病은 見肺脈하면 金剋木也라

〔14-19〕病實而脈虛也라

〔20-25〕脫血은 脈實이면 相反也라

〔26-31〕陽病은 見陰脈이면 相反也라

〔32-35〕洩而脈大는 相反也라 大腹은 腹脹也라

〔考察〕

36)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17-18.

37)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66-70.

病에 있어서 잘 治療되는 것과 잘 治療되지 않는 것은 脈과 證을 比較하여 그 豫候의 좋고 나쁨을 가릴 수가 있다. 그 중 가장 重要的 것은 脈과 證의 符合與否에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는 脈과 證이 相應하면 그 豫候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豫候가 나쁘다. 本難에서는 脈과 證이 서로 合해진 것으로서 假令 눈을 감고 다른사람 보기를 싫어 하는 肝病에 弦脈이 나타나고, 熱이 나고 口渴症이 있으며 心下가 堅硬한 心實熱證는 緊實하면서 數한 脈象이 나타나면, 이는 肝病에 肝脈이, 心病에 心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脈과 證이 相應한 것이므로 쉽게 治愈된다는 意味인 것이다. 또 陰虛해서 吐血과 鼻出血이 있으면 脈이 沈細하게 나타나고 譫言 妄語와 같은 陽明經證이나 發熱에는 脈이 洪大하게 나타나고, 脾濕하여 腹部가 脹滿하고 泄瀉가 나는데 脈이 弦細하면서 澁하게 나타나면 이것은 虛證에 虛脈, 實證에 實脈이 陰證에 陰脈이 陽證에 陽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治療의 豫候는 좋은 것이다.

假令 脈과 證이 相合하지 않는 病은 거의 治療하기 어렵고 甚하면 不治의 死證에 이르게 된다. 萬若 肝病에 浮短하면서 澁한 肺脈이 나타나고, 心病에 沈濡하면서 微한 腎脈이 나타날 境遇에 五行理論으로 分析하면 金克木과 水克火의 脈과 證이 나타나므로 豫候가 대부분 좋지 않다. 陰虛하여 吐血과 鼻出血이 있는데 오히려 浮大하면서 實한 脈이 나타나면 病虛脈實이 되므로 죽게 되는 것이다.

《素問 玉機眞藏論》에 “脫血에 脈이 實하면 … 治療하기 어렵다.” 고 한 것이 이러한 뜻이다. 譫言 妄語 發熱은 陽明熱盛證에 屬하는데 도리어 手足이 厥逆하고 脈이 沈細하면서 微하게 나타나면 病實脈虛에 屬하므로 죽게 된다. 腹部가 脹滿하고 泄瀉가 나는 것은 脾濕下陷이 되는데 도리어 滑大한 脈이 나타나면 病虛脈實이 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脈과 證이 相反된 것이므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다.

本難에서 “或 治療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고 혹은 몇 달 혹은 몇 해에 걸쳐 낮지 않는 것이 있다.” 고 한 이 두가지 狀態에 대해서는 解答이 보이지 않으므로 滑伯仁은 闕文이 있는 것으로 疑心하였으며 丁錦은 “治療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는 것은 곧 第十三難의 相生 脈이고 몇 달, 몇 해에 걸쳐 낮지 않는 것은 곧 第五十五難의 積聚病에 相應한다.” 고 하였으니 서로 比較 檢討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病證	脈相合	脈相反	豫候不良의 機轉
閉目 不欲見人	肝脈 強急而長	肺脈 浮短而澁	金剋木主死
開目而 渴心下牢	堅實而數	沈澁而微	水剋火主死
吐血復 衄衄血	沈細	浮大而牢	病虛 脈實主死
譫言妄語 身當有熱	洪大	沈細而微 (手足厥冷)	病實 脈虛主死
大腹而泄	微細而澁	緊大而滑	病虛 脈實主死

IV. 結 論

《難經》 중에서 脈에 대해 言及하고 있는 第十六難과 第十七難에서의 內容은 《內經》의 脈의 理論을 더욱 深化시켜 繼承說明하고 있다.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1. 第十六難과 第十七難은 診脈과 證狀의 相互關係를 바탕으로 診斷하는 法을 說明하였고, 그 중 第十六難에서는 證에 比重을 두었고 第十七難에서는 “脈證相應”과 “脈證不符”로 豫候의 좋고 나쁨을 總括적으로 說明하였다.

2. 第十六難에서는 《素問·三部九候論》이나 《素問·方盛衰論》等에서의 言及과는 달리 보다 具體적으로 脈과 證의 相關關係를 論하였다.

3. 《校注》에서 第十六難의 內容에 對해

滑伯仁이 認識하였듯이 答과 質問사이에서 서로 相合하지 못한 바가 있다. 闕文이 疑心스러운 것인데 謝氏의 말을 引用하면 「此篇問三部九候以下共六件한데 而本經并不答所問하니 似有缺文이라」이라 하여 그 內容을 나타내고 있다.

4. 細密하게 第十六難을 考察하여 보면 主要 目的에 있어 脈診과 內外證이 疾病診斷의 問題에 어떻게 連結되며 特히 強調하는 것은 診察證候의 重要性인 것이다. 第十七難은 豫候不良의 機轉을 相生相剋과 陰陽虛實의 理論으로 分析하여 診斷하는 것을 說明하였다.

5. 以上에서 말한 第十六難과 第十七難의 內容은 《內經》에서 說明하지 못한 內容을 解釋하려 한 것으로, 《內經》보다 進一步한 論述을 보였으나 未洽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더욱 깊은 研究를 必要로 한다.

參 考 文 獻

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4.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5.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7.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8.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9.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10.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11.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2.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3.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14.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5. 加藤宗博,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